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2019. 10. 14.(월) 10:00	배포	2019.10.14.(월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담 당 자	김태훈 사무관(02-2100-2861) 김종식 사무관(02-2100-2864) 김명지 사무관(02-2100-2865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

제 목 : 은성수 금융위원장,
「부산·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현장간담회」 개최

- '19. 10. 14일(月)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조선기자재업체인 파나시아에 방문
 -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

< 조선기자재업체 현장감담회 개요 >

■ 일시·장소 : '19.10.14(월) 10:00~11:30 /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업체

※ 방문회사 개요 : 파나시아

- ◆ '89.10월 설립하여 선박 및 산업설비 관련제품 등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부산 강서구 소재 조선기자재업체
- ◆ 선박평형수 처리장치, 황산화물 저감장치(스크러버) 등 친환경설비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평가

■ 주요 참석기관

-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산은, 수은, 기은, 신보, 무보
- 조선기자재업체 6개사(파나시아, 동화엔텍, 테크로스, 선보유니텍, 혜성 ENG, 대상)

-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한 파나시아는 전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'18.6월에 방문한 조선기자재업체로서,
 - 정부가 약속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,
 - 앞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서류상 지원실적이 아닌 현장에서의 체감효과 중심으로 챙겨나가겠다고 강조

※ [참고] `18.6월 현장방문시 주요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

① (A社) 친환경 기자재 제작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요청

→ (조치완료) 친환경 설비 보증프로그램 신설(무보, `19.3월, 총 2,000억원)

* 무보에서 수출용 친환경설비 제작에 필요한 제작금융·RG에 보증을 제공

② (B社)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요청

→ (조치완료)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상생보증(`18.12월, 0.1조원),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(`19.1월, 10조원),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(`19.6월, 2.5조원) 신설

③ (C社) STX조선해양,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소 안정화 방안 마련 요청

→ (이행중) STX조선은 자구노력·사업재편 추진, 성동조선은 4차 매각 추진

④ (D社) 사업실패 지원 프로그램 마련 요청

→ (조치완료) 재기지원프로그램* 지속운영, 밸류업 프로그램** 신설(`19.6월)

* 재창업자에게 채무원금 최대 75% 감면, 재창업 자금 지원(신·기보, 중진공, 최대 10억원)

**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·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선제적 지원

□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, 조선 업황도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

▶ 국내 수주도 세계 발주량 증가 속에 '17년 이후 회복세* 전환

* 국내 수주량(만CGT) : ('16)223 ('17)783 ('18)1,312 ('19.1~9월)527
(`19.1~9월 수주량은 세계 2위, 수주금액(127억불)은 세계 1위)

▶ 최근 조선산업 종사자 수가 회복*하고, 거제·통영지역 등 실업률도 완화**

* '15.8~'19.6월까지 약 4년간 감소세를 이어온 조선업 등 종사자 수가
'19.7~8월 2개월 연속 증가 ('19.7월 13.8만명 → '19.8월 14.0만명)

** 거제 실업률(%) : ('18.上) 7.0 → ('18.下) 7.1 → ('19.上) 6.7

통영 실업률(%) : ('18.上) 6.2 → ('18.下) 6.0 → ('19.上) 5.9

○ 하지만,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우리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,

- 효율성·품질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살리는 한편,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

○ 이를 위해 금융위는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추고,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굳건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며

- 특히, 조선 기자재업체 등에 대해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*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나간다고 언급

* ①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(수은, 2.5조원), 소·부·장 경쟁력 강화 보증(신보, 1.0조원) 등 20.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, ②M&A 투자금융협의체(9.10일 발족) 등을 통한 해외기업 인수금융 지원, ③소·부·장 전용펀드('20년 정부예산안 0.2조원 반영) 조성

※ 주요 프로그램 지원 실적

- ▶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(산·기은, 3년간 10조원) : 3.1조원 ('19.1~8월)
- ▶ 시설투자 특별은렌딩(산은, 1조원) : 1,944억원 ('19.7~8월)
- ▶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(산은, 2.5조원) : 4,536억원 ('19.7~8월)
- ▶ 밸류업 프로그램(신보, 60개사 지원) : 83억원('19.6~8월)

□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·정책금융 기관·업계의 합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,

○ 정책금융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적기에 충분히 금융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, 업계에서는 기술개발·생산성 제고 등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</p>	 <p>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</p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